

전북대 ‘중간권의 늪’ 교육투입 격차 고착화

‘거점대’ 이름뿐 인프라 격차 심화
학생1인당 교육비 서울대 절반 수준
연구비 확보에도 학생 체감 ‘제로’
“지방대는 경쟁 아닌 생존의 문제”

② 거점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보로 지역사회에서 갖은 지탄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전북대의 특임교수 남발과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취업률, 주차비 인상, 유학생 실태, 등 문제점을 10여 차례 걸쳐 중점 보도한다. <편집자 주>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며 지방 거점국립대인 전북대학교도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교육부의 2024년 대학정보공시를 보면, 거점국립대 간 교육투입 격차는 이미 ‘고착화’ 단계다. 전북대학교는 연구성과에서는 상위권이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재정투입 규모는 수도권 대학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전북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507만 원으로, 충북대(2,486만 원)·강원대(2,397만 원)와 비슷하다. 거점국립대 평균은 2,530만 원 선이다.

반면 서울대는 6,302만 원으로, 지방 거점대의 2.5배 이상이다. 학생이 누리는 교육 인프라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대는 지역 산업·지자체와 연계된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강세를 보인다. 지난해 외부 연구비 4,800억 원을

확보해 충북대·강원대를 앞섰다. 그러나 대형 과제 중심의 연구 구조와 낮은 교육투입비는 여전히 과제다.

현장에서는 “연구비는 늘었지만 학생이 체감하는 수업·실험·장학 투자는 제자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북대 교수는 “재정 구조가 연구 중심으로만 흐르면 교육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과 연구의 균형이 깨지면 대학의 지속 가능성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지방대의 위기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다. 15년째 동결된 등록금, 감소하

는 정부 교부금, 지역 소멸로 인한 신입생 급감이 맞물리며 대학 운영의 숨통을 죄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절반 예산으로 같은 교육을 유지해야 하는 ‘불균형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대들이 단순히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보다 재정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재정 전문가 김모 교수는 “등록금 수입이 정해진 상황에서 대학이 버티려면, 지역산업 맞춤형 학과 개편과 기부·산학펀드 등 비등록금 수입 다변

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대학들은 “일회성 지원으로는 구조적 격차를 줄일 수 없다”며 회의적이다.

실제 거점국립대 평균 교육비는 5년째 2,500만 원 안팎에서 정체돼 있다.

결국 지방대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투자 부족이 아니라 ‘국가적 불균형’이다.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전북대가 ‘중간권의 늪’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성민 기자



“인공태양 새만금으로” 4일 서울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새만금 유치 촉구 기자회견에 김관영 전북 정치권 한복소리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및 참석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 ‘인공태양’ 새만금 유치 총력 미래 에너지 심장 노린다

도·군산시, 국회서 시설 유치 촉구
‘유치위 100인 발족’ 본격 활동 나서

전북도가 4일 군산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북 새만금 유치를 촉구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공동유치위원장인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 군산시,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만금을 미래 에너지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핵융합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가 전북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새만금을 최종 입지로 선정해줄 것을 건넸다.

도와 군산시는 2009년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에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며 핵융합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입지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새만금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유

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교통 허브이자, RE100 기반의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실증형 복합 산업단지다.

이같은 특성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환경임을 보여준다. 이차전지, 탄소소재, 에너지 산업 등 연계 산업 기반도 구축돼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의 현실적이며 필연적인 선택지라는 주장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그동안의 핵융합 연구 협력 경험과 새만금의 인프라를 토대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전북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만큼, 반드시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김관영 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100인’을 발족하고, 상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정동영 “미중 AI 패권 경쟁 속 ‘AI-AX 도약 전략’ 모색”

민·관·정과 국회 AI 정책포럼 개최
“디지털 AI, 국가경쟁력 재편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과 관련,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관·정과 함께 ‘미중 AI 패권 경쟁과 국내 AI-AX 도약 전략·디지털 AI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회 AI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관·정은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AI와 AX(AI 대전환) 육성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세계 AI 3강과 AX 1강으로의 도약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젠스 황 엔비디아 창업자가 최근 경주 APEC(아태경제협력체)에 참

여한 뒤 AI 개발에 꼭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한국에 무려 26만장이나 공급하겠다고 밝혀 긴급히 후속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국회 AI 정책포럼은 정동영·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사)AI휴먼소사이어티, 서울대 AI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합뉴스TV, 디지털타임스가 공동 주관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미·중에 이은 AI G3 진입을 목표로하는 상황에서 정치권, 정부, 기업, 학계, 연구계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단지성을 발휘했다.

<2면에서 계속>

고창·부안 원전 인접지역 국가지원 확정...전북도 노력 결실

고창·부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교부세 항목 신설...3년 건의 성과
원전 소재지와 동일 규모 금액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 항목을 신설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창·부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내년부터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국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

의하고, 원전 인접 지자체와의 연대(원전동맹) 활동 등을 이어온 결과이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반경 30km 이내에 포함되는 고창군과 부안군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이후 원전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10km에서 30km로 확대했으나, 고창·부안군 지역은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

책 건의를 이어왔다

특히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직접 만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고, 2023년에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했다.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내 재정지원 항목 신설안을 확정 반영했으며 관련 교부세법 시행규칙은 11월 중 입법예고 후 공포·적용될 예정이다.

재정 규모는 ‘원전 소재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

액’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된다. 한빛원전 기준 기초지자체 1개소 배분액은 ▲2024년 약 29억 원 ▲2025년 약 24.6억 원이었으며, 고창·부안군도 내년분부터 동일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보통교부세 반영은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며 “고창·부안 등 한빛원전 인접지역이 국가 지원체계 안에서 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전북의 소식은
전북타임스와 함께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Your Jeonbuk,
Our Stories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확정...농촌위기 해법 찾는다

행안부 재단 설립 최종 승인 완료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전문기관
농촌경제·복지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역 공동체 육성 소멸위기 대응

전북도가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전문기관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10월 29일 행안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3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4월 농식품부 전국교육훈련기관을 지정받았으며, 우여곡절 끝에 이번 10월 운영체제

적인 법인 설립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농촌문제 본격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모두 갖췄다.

농촌지역은 현재 급격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지역공동화 문제 야기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져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13개 시군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과소화는 농촌생활인프라 폐쇄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농촌과 도시간 삶의 질 만족도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핵심영역에서 삶의 질 수준도 격차를 가

져왔다.

또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부작용의 고리를 끊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경제사회 분야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하였으나 해당되는 기관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농촌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지난 2015년부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2017년부터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019년에는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해 선제적으로 농촌위기를 대응해왔다.

기존 위탁·보조방식의 사업추진 한계 극복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성 확보, 수

동적 업무추진 개선, 업무 전문성 확보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교육훈련기관의 전문적 운영이 가능한 재단설립을 추진했다.

재단 설립방향은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와 신규 전국교육훈련기관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자본금 3억원, 예산은 48억원 규모로 재단이 설립되어 출범하게 되면 올해 3월 준공한 4층 규모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이번 포럼에서는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겸 도서포럼 의장이 '글로벌 AI 경쟁과 한국의 AI G3 전략'에 관해 기조발제를 하고 이재욱 서울대 AI연구원장과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각각 '미중 등 글로벌 AI 트렌드와 전망', '한국의 AX G1을 위한 현주소와 과제'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박 의장은 "최고의 AI- Native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AI-Native한 협업 체계를 갖추고 AI를 활용한 최고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첫 번째 고객이 되어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욱 원장은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현실 세계로 확장된 AI 경쟁으로 미중 중심의 새로운 전장이 펼쳐졌다"며 "피지컬 AI는 제조업 생산성, 군사력, 에너지 효율 등 국가경쟁력을 재편하는 기술로 향후 자율전장체계, 제조 생태계, 도시 인프라 지능화 등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

했다. 김동환 대표는 AX 확산을 통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교육 등 서비스 혁신을 꾀해야 한다"며 "Agentic AI 시대의 생존 조건은 AI Native"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고관 본 서울경제 부국장이 좌장을 맡아 박태웅 의장, 김동환 대표는 물론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장경미 NIA 부원장, 이영택 SK텔레콤 부사장, 구태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장, 정문식 서울대 AI연구원 산학협력중점교수와 함께 AI-AX 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청중들도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포럼을 주최한 정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AI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인간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사)AI휴먼소사이터티 조성부 회장은 "국내 AI-AX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차세대 동물 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

익산·정읍 중심 450억 투입
반려동물 신약개발 실증 추진
3,200억 생산·1,800명 고용창출

전북특별자치도는 차세대 동물 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후보특구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된 제도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 기반 신산업 추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구역이다.

규제특례 적용과 재정지원(R&D, 사업화, 인프라), 세제 혜택 및 부담금 감면 등 정부와 기업 유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은 친환경자동차특구(2019), 탄소융복합특구(2020), 기능성식품특구(2025)가 지정돼 있다.

차세대 동물 의약품 규제자유특구(180.16㎢)는 최종 지정 시 익산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와 정읍 전북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50억 원이 투입된다.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총괄을

맡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협력해 약 1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으로 동물 의약품 신약개발 병목현상 해결, 수입 의약품 대체 확대, 자기백신 전품목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 고양인 신약개발 산업의 혁신 성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액 3,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150억 원 및 1,8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와 인공혈액 및 혈액대체제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수립한다. 상용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신약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이 추진된다.

현재 3개로 한정된 국내 자기백신 대상을 확대하는 '자기백신 대상 전품목 확대 실증'도 진행된다. 수의사 처방에 따라 농장별 유행주 검사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백신을 제조·사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고양이의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전북 차세대 동물 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진=전북도>

지정 필요성 실증'을 통해서도 고양이를 실험동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실험용 고양이 품질 검증·수입 및 공급 표준 시스템을 구축해 반려도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비임상·임상시험을 수행한다.

'의약품 대비 동물용의약품 시험 항목 중복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에서는 반복투여 독성시험 과정에서 국소독성 및 피부감작성 자료를 확보한다. 별도 독성

시험 결과와 비교해 대체 가능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후보특구 선정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세부 실증사업 보완, 특구사업자 모집, 규제신속 확인 등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분과위, 심의위, 특구위원회의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26.5)이 완료되면 2027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본격화된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인격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금지청구권·손해배상 근거 마련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



박희승 의원

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

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판례에는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등의 문제가 있다.

박 의원은 "각종 SNS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불법촬영, 개인 정보 유출 등 인격 침해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대폭 증가했다."며, "인격적 가치와 인격표지영리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자치도, '철새 주의단계' 발령...AI 확산 방지 총력

군산 이어 3일 부안서 추가 검출

전북도가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또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29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11월 3일에는 부안군 백산면 고부천 일대에서 포획한 쇠오리 시료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농장 2건(경기 1, 광주 1), 야생조류 2건(전북 2)이 보고된 상황이다.

전북도는 즉시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방역대 내 54호 가금농가(닭 41, 오리 12, 메추리 1)에 대해 21일 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소독 강화와 예찰 활동을 병행하며 방역대세를 한층 강화했다.

도는 철새 도래지와 수변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명령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농장 진입차량 제한 ▲분뇨 및 가금류 유통 제한 ▲차량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의무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는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김제 방역 현장 점검.

<사진=전북도>

독감 주사 주의사항

예방접종 준비 시

- 건강상태가 좋은날에 받는다.
- 사전에 예약을 한다

예방접종 받을 때

-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의료인에게 말한다.
- 접종후 20~30분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 한다

예방접종 받은 후

-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2~3일간 몸상태를 살핀다
- 고열,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이나타나면 병원에 내원한다.

전주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모이장’ 11월 중 개관 예정

문화공판장 작당 1층서 개관 4일 우범기 시장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특산품을 구매하며 다양한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형 복합문화공간이 전주 남부시장에 들어선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막바지 개관 준비에 한창인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모이장(문화공판장 작당 1층) 현장을 방문

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공동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주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현장에서 남부시장 백년시장 공모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부시장 상인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모이장’은 ‘2017~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매입한 옛 원예공판장 건물 1층에 조성되며, 이곳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특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을 비롯해 공연장과 식음료 판매, 여행자 라운지 등을 갖추게 된다. 공동판매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게 된 ㈜더레드는 지역 내 공연예술기획 및 다양한 현장 운영 경험에 있는 업체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

순한 공동판매장이 아닌 로컬콘텐츠와 새로운 공연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도시 전주의 패러다임을 확장하고자 하는 운영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모이장이 개관하면 현재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인 2층 문화공판장 작당과 더불어 남부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노인 건강관리 ‘강화’

전주시보건소, 취약계층 한파 심뇌혈관 질환 예방 총력

전주시가 겨울철 한파와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강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한 노년과 자립적인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만성질환자 관리, ‘오늘건강’ 사업,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맞춤형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이 500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해 혈압·혈당 등 기초검진과 질환

관리 교육 등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만성질환 조절이 안 되는 집중관리군 350명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8회 방문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한랭 질환에 취약하고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 1350명에 대해서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내복과 장갑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는 예년보다 이른 추위에 대비해 스가벼운 실내운동 스포츠웨어 및 충분한 영양 섭취 △실내 적정 온도·습도 유지 △외출 전 날씨 정보 확인하기 △외출 시 따뜻하게 옷 입기 △방한용품 사용하기 등 겨울철 건강 수칙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겨울철 발생

률이 높은 질환에 대비해 초기 증상 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기존의 방문건강관리, 심뇌혈관질환, 경로당사업 외에도 비대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인 ‘오늘건강’ 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건강 돌봄을 촘촘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보건소는 전주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는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체조 강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낙상 예방을 위한 근력 강화 체조와 스트레칭, 생활 체조 등을 제공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직의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과 한의 진료 및 상담

등도 이뤄진다. 아울러 보건소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오늘건강’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또는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늘건강’ APP과 연동된 디바이스를 제공해 전문 인력이 비대면으로 혈압과 혈당 등 건강수치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미션을 부여해 대상자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지역 영상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김윤철·천서영 의원 주최로 마련

전주시의회는 4일 ‘지역사례 기반 영상작품화를 통한 전주 영상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시 역사·문화·생활 등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방안 모색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철 의원(북지환경위원장, 중앙·풍남·노송·인후3동)과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기록관학과 김건 교수 ‘투구봉 사례연구 중심의 지역사례 기반 영화제작을 통한 전주 영상산업 발전방안’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전주시의회는 4일 ‘지역사례 기반 영상 작품화를 통한 전주 영상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건 교수를 좌장으로 △그린피쉬 스튜디오 신연철 PD의 타지

역 대표 지역 영화 및 소재, 지원 사례 △전북연합신문 임종근 국장의 ‘도시 경쟁력, 영화로 있다’ △전주시 문화산업과 정명순 과장의 전주시 지역기반 영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의 ‘활용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이야기가 살아있는 도시로’ 등을 주제로 전주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제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철·천서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영상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전주를 담은 작품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2025년 워크숍 개최

자원봉사활동처관리자 1백명 대상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4일 센터 이웃사촌방에서 전주시 소속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자원봉사 현장 관리자들의 정서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자기 이해와 감정 관리 역량을 강화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전주시가 선포한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라는 비전에 발맞춰 정신건강과 자원봉사를 연계함으로써 정신과 육체가 조화롭고 건강한 자원봉사 현장을 만들자는데 목적을 뒀다. 이날 워크숍은 △스트레스 관련 생체반응 자기 점검 △인지행동치료

통한 회복력 강화 △마음챙김 명상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과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앵커링 명상을 통한 주의력 훈련과 크리스탈 심잉클 사운드 테라피를 결합한 명상 세션은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현장에서는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 운영관리 교육과 Q&A 시간도 마련돼 활동처 관리자들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경진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리자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며, 더 건강한 마음으로 자원봉사 현장을 이끌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IF,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실무자 점검회의 열어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4일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실무자 추진성과 점검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캠퍼스융합기술원,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기업지원 실적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기업지원 실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성과 △협업부처 조성 현황 △판로개척 프로그램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별 기업지원 실적으로는 순창군은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와 연계 고부가가치제품개발

설립, 시제품 제작, 기능성 평가 지원 등 42개 기업 지원, 김제시는 특장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기술 컨설팅, 선행기술 기획,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인증,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등 15개 기업 지원, 장수군은 레드푸드산업 및 스마트 농업 연관 기업 17개사를 대상으로 농가혁신기술지도, 제품도급화지원, 마케팅지원 등 추진, 남원시는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기업 17개사에 고부가가치제품 개발, 기술 컨설팅, 시제품 제작, 제품 리뉴얼지원 등 지원. 이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4개 시·군에서 총 91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종한 단장은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곧 현장의 목소리”라며, “성과 점검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글로벌 스포츠 도시 협력 강화

호주 브리즈번·멜버른 방문길 올라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 출장길에 오른다. 우범기 시장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4박 7일간의 일정으로 국제스포츠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해외 선도 도시들의 인프라 조성 전략과 지역 기반 스포츠 생태계 운영 모델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호주 브리즈번과 멜버른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번 호주 방문은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 역량 강화와 국제 스포츠 외교 네트워크 확충 및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스포츠 타운 조성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 인프라와 문화·관광 자원을 스포츠 산업과 연계하는 해외 사례를 실제 현장에서 비교·분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 시장은 먼저 브리즈번 시청을 방문해 샌디 랜더스 시장의장 및 국제스포츠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우 시장은 멜버른으로 자리를 옮겨 도시의

스포츠 인프라를 문화·관광 산업 자산으로 장기 재생산하는 데 성공한 운영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우 시장은 멜버른 파크와 크리켓 그라운드 등 글로벌 수준의 경기장 클러스터를 방문해 연중 행사 운영 구조와 시민 접근성, 문화행사 유치 전략 등을 분석하고, 멜버른시의 CEO 및 시의원단과 만나 스포츠·문화·관광 분야 등 우호협력 공동선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 시장은 빅토리아주 한인회 및 코트라 멜버른 무역관 관계자와의 간

담을 통해 국제교류, 문화·관광 연계 협력 기반 확대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전주가 이제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도시의 역량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국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며 “국제 스포츠 외교 네트워크를 폭넓게 확장해 전주가 글로벌 스포츠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위한 도시 운영 전략 모색

4일 ‘인구변화 정책방향과 도시운영전략 포럼’ 개최

전주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고령화의 가속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4일 청년이음전주 5층에서 인구감소가 도시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수형 인구정책 방향과 지속가능한 도시운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주시 인구변화 정책방향과 도

시운영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인구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예숙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 관점에서 보는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 시대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문동진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전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인구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발제 후 황병찬 도시계획협의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U.B 소장, 최창성 전주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전희전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이보순 전주시의회 의원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종합 토론회 펼쳐졌

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도시계획, 연구기관, 의회, 교육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인구감소 대응과 도시운영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행정·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구정책 거버넌스 기반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도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아침밥먹기’ 교육생 1만명 달성

농심천심운동 일환 건강한 식습관 문화 정착 농민 쌀 소비촉진 기여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북농협이 “아침밥먹기” 교육생 1만명 달성 기념식을 지역 초등학생들과 함께했다.

아침밥 먹기 인식개선 교육은 농협의 새로운 농업·농촌 국민운동인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10대 과제 중 하나인 “農村 캠페인”을 실천 및 확산시키고자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협은행의 청소년금융교육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전주 자연초등학교(교장 최상진)에서 제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인식개선 교육 및 교육인원 1만명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4일 마련된 이번행사에는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최상진 자연초등학교장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아침밥의 좋은 점 △아침밥 먹기 운동 동참 방법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날 아침밥 먹기를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생활화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농촌을 더 알리는데 교육 및 지원사업 발굴



‘농심천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북농협이 “아침밥먹기” 교육생 1만명 달성 기념식을 지역 초등학생들과 함께했다.

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2025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에서 소아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전북대학교병원이 4일 밝혔다.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소아 환우 후원금 기부

KLPGA 대회서 마련된 금액이다.

두 기관은 2021년 대회가 시작된 이후 캐리리존을 통해 모아진 금액을 매년 꾸준히 소아 희귀난치질환 환우의 치료비로 기부해왔으며, 올해까지 총 5회에 걸쳐 1억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에 전달돼 형편이 어려운 소아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8명의 소아 환우에게 혜택이 각각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2025년 금연사업 심포지엄’ 건강한 미래 선언

금연사업 정책적 중요성 공유 건강문화 조성 다져

전북특별자치도-전북금연지원센터는 4일 “2025년 금연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금연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공유하며 도민 건강문화 조성

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도와 전북금연지원센터, 도내 14개 시·군, 유관기관 관계자, 금연에 동참한 공동주최·금연우수학교·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연 심포지엄을 통해 금연 정책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전북도는 금연사업 일환으로 금

연클리닉 운영,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금연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도내 흡연율은 2023년 20.6%에서 2024년 18.2%로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전북금연지원센터 및 국가금연상담전화(1544-9030) 또는 누리집 등

을 통해 금연상담, 병·의원 치료지원, 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다.

김정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도민이 금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지원 인프라 강화와 건강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고창 대산신협, 11년째 이어진 ‘사랑의 점심 나누기’

조합원어르신들에 점심 대접 사회공헌활동 ‘실현’

고창지역 어르신조합원 대상으로 한 대산신협 점심대접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산신협(이사장 정연성)은 지난 3일 지역 경로조합원 어르신 300여명을 모시고 ‘사랑의 점심(짜장면) 나누기’를 진행했다.

‘사랑의 점심(짜장면) 나누기’는 대산신협이 주관하는 사회공헌활동 일환이다.

점심나누기 행사에는 대산신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손손모아봉사단 20여명·여성조합봉사단 20여명·나누면 봉사단 20여명 등 총 60여명 등 참여해 어르신 점심차림에 정성을 쏟았다.

특히 점심메뉴로 준비된 짜장면은 고창지역 내 북경면집이 후원했으며 북경

반점 나누면 봉사단원들이 참석해 술선수별 어르신 점심봉사에 온정을 더했다.

식사 이 후 대산신협은 조합원어르신들의 문화활동으로” 고창판소리 녹두꽃예술단·통기타 그룹밴드 소이(SOY) 팀들의 재능기부 시간을 갖고 어르신들의 정서교감”을 실현했다.

고창군 대산신협 점심나누기 프로그램은 지난 ‘12년도에 시작돼 올해 11번째를 맞았다. 도중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3년 중단 후 재개됐다.

더불어 대산신협은 매년 대산노인회에 난방비 지원금을 전달하고,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온세상 나눔캠페인(난방용품전달)등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아울러 지역학생 위한 장학금전달,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1신협·1아동 결연사업 진행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농심천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북농협이 “아침밥먹기” 교육생 1만명 달성 기념식을 지역 초등학생들과 함께했다.

정연성 이사장은 “대산면 내 경로조합원 위해 음식 봉사참여, 문화공연 등의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

으로 대산신협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TP-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 활성화 ‘맞손’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4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과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투자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지역 농식품바이오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지역 혁신기업 발굴을 강화와 투자 선순환을 체계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지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식품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수산물 산업 분야의 투자 전문기관으로 전국 단위 자금 운용과 투자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림수산물기업 발굴 및 육성 △투자자·자금연계 △멘토링·교육 등 창업·투자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함께 추진할 전망이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전북 농생명바이오기업 투자로드쇼에는 양 기관이 발굴·추천한 전북지역 유망 농식품·바이오기업 8개사가 참여해 자사의 핵심 기술과 사업모델을 선보였다.

참여기업은 △㈜엘아이엔티(지능형

관수제안 모듈 ‘팜코디’) △메디코스바이오텍(거미실크단백질 생산) △㈜신성이엔에스(농축산용 방역 및 수처리장비) △사이클렉스(가축분뇨처리 관제시스템 기반 탄소배출권 인증 솔루션) △엔텍바이오에스(친환경 메탄저감사료 제조 솔루션) △우리비엔비(폐지 부산물 활용 의약품 개발) △바이오엔(식품의약품 동물용·농자재용 천연소재) △㈜휴넷(동물용 제품 연구개발) 등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의 농식품바이오 분야가 공공 중심의 지원을 넘어, 민간투자 기반의 창업 생태계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투자연계와 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은 “전북은 명실상부한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서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 농식품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금원은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사진=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노송신협, 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물품 전달

전주노송신협은 지역사회 함께 성장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는 ‘온 세상 나눔 캠페인’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포함한 위기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은희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지역사회 아동을 위

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전주노송신협 임직원 이사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마음 전달해 추운 겨울 속에도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주노송신협 임영빈 이사장은 “이번 후원물품 전달로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로상 단체분야에서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

전북바이오진흥원, 안전대상 소방청장상 수상

안전문화 정착 유도 성과

특히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취득 △안전 전담 TF 운영 및 비상 훈련, 합동 안전점검 실시 △인프라 단지 전체 대상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안전지원 등 다양한 안전강화 활동을 추진해 모범적인 안전문화 정착 사례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수상 제도이다.

이번 수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원기관 최초의 성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정착 노력 등 전반적인 안전 역량에서 인정받은 결과물이다.

/정혜민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예정공무원 생애설계 지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국)은 인생전환기를 앞둔 퇴직예정공무원의 체계적인 생애설계 지원을 위해 민간 위탁 퇴직준비 교육과정을 도입,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공단은 이번 퇴직준비교육 위탁과정을 ㈜현대경제연구원 위탁해 11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울·용인·제주 3개 지역에서 운영하며 총 1,520명의 퇴직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과정은 △인생 2막 디자인 과정(미래설계) △명명한 자산관리 율타리 과정(금융전문)으로 총 2개 과정이며, 교육내용은 퇴직 준비의 필요성, 관계와 소통, 금융자산 관리, 건강 관리 등은 퇴 이후 필요한 분야 위주로 구성해

총 19회를 운영한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 제주 이전 10주년을 맞아 제주지역에서 퇴직예정 공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는 제주지역 상생 및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대해 김진주 복지운영실장은 “공단은 이번 민간위탁 퇴직준비교육과정 운영을 계기로 보다 많은 퇴직예정공무원이 은퇴 이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고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만족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익산시, 주거취약계층 70가구 도배·장판 무상시공

익산시가 민관 협력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익산시는 주거지원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70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무상시공사업'을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약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접수된 100여 가구 중 노후도가 높은 70가구를 우선 선정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단열 및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주거 공간을 조성했다

익산시 주거지원센터는 저소득층 주택수선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수리시공 등의 지원체계를 갖춰 주택관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보건소, 6~14일 금연구역 합동 조사

군산시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조사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해 '국민건강증진법' 및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관내 금연구역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설관리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협의체 출범 기업 간 상생협력 도모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체)가 지난 3일 복합문화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알케이 송석기 전무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협의체는 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행정과 기업 간 소통뿐만 아니라, 기업 상호 간 정보 공유와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5월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정관 제정, 회원사 모집 등 창립총회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회원사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 등 협의체 설립 안건을 처리하며 공식 출범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산업단지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입주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며, 공동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기술협력 촉진 등을 통해 산업단지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출범은 기업들과 소통하는 공식 채널이자, 행정과 산업단지가 함께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정읍 조성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KTX 익산역사 시설개선 ‘총력’

복합 기능 갖춘 대규모 개선 필요 정치권 공조 강화

익산시가 호남 철도 관문인 KTX 익산역사의 대규모 시설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익산역사가 업무·문화·비즈니스 기능이 결합된 복합 역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물론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지난 10월 31일에는 이춘석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지역 시의원 등과 회의를 열고 KTX 익산역 시설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80억 원을 투입하는 ‘익산역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익산시는 용역 결과가 단순한 선상역사 보강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증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산역은 KTX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호남권 핵심 거점으



로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 관문이다.

<사진=익산시>

특히 시는 서해선 개통(2026년 예정)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2032년 예정) 등 국가철도망 확충이 본격화하면, 이용객이 현재 연간 680만 명에서 2030년 1,0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여객시설 규모는 1,376㎡로 예상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익산시는 8,000㎡ 규모의 대규모 선상역사 증축을 통해 대합실 및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문화·컨벤션 기능

까지 갖춘 거점역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익산역 시설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성장의 핵심 기반인 교통 인프라 사업도 함께 논의했다.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익산역 시설개선 사업이 대규모 증축으로 역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극한 강우에도 끄덕없는 도시로

재해예방사업추진가속화 조촌개야도지구추가선정

군산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상습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해예방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의 이런 움직임은 실제로 기후 변화가 점차 국지적이고 단기간에 극한호우, 대설 등이 집중되는 돌발성 기상 현상으로 두렵하게 바뀌면서, 시는 기존의 예측과 대비 체계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시설보강 수준을 넘어,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수침수·사면붕괴·대설·강풍·해일 등 9개 자연 재난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습 피해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대책을 담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시와 농촌, 도서 지역의 취약지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구암, 신평, 나운, 경포지구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은 국가 공모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8년까지 총 1,835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구암지구는 이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신평·나운·경포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구암지구 사업의 경우 도심지 내 저지대 침수 문제 해소와 노후 하수시설 정비도 병행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발

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촌지구와 개야도지구가 지난 9월에 2026년도 재해예방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총 739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조촌지구는 내수 침수 상습구간의 배수 개선, 개야도지구는 해안 절개지 붕괴 위험지 개선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문춘호 안전건설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피해지역의 정밀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 선정은 큰 성과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수도산 장난감 도서관’ 개관

장난감 대여실·수유실 등 영유아 맞춤 공간 갖춰

익산시가 영유아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는 공간 ‘수도산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했다.

익산시는 4일 금강동에 위치한 수도산 장난감 도서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수도산 장난감 도서관은 동부권 영유아 가족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됐다. 지난달 준공 후 장난감 대여실과 놀이 프로그램실 운

영 준비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장난감 도서관 내부에는 102종, 326점이 비치된 장난감 대여실을 비롯해 프로그램실, 수유실 등 영유아 맞춤형 공간이 마련됐다. 프로그램실에서는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별한 놀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용 대상은 익산시 거주 7세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으로, 보호자가 회원가입 후 연회비를 납부하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여 수량은 1회

2점이고 다자녀 가정은 3점까지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15일이다. 시는 이번 장난감 도서관 개관으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수도산 장난감 도서관은 아이가 행복하고, 육아가 즐거운 아동친화도시의 핵심 시설”이라며 “도서관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놀이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본격화

내년 11월 준공 2027년 1월 공식 개소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4일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시

관계자, 설계용역사, 감리업체,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공사 착수회의를 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계 방향, 시공 일정, 안전관리 및 품질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시는 이번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며, 2026년 11월 준공 후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거쳐 2027년 1월 공식 개소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정기 공정회의를 운영하고, 건립 공정·품질·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국가예산 확보 구슬땀

국회 찾아 현안 건의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 등 주요 국회의원들을 만나, 팻푸드 플랫폼 구축 등 6개 중점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사업은 총사업비 728억원 규모이며 2026년 국비 요구액은 96억 5000만원이다. 여기에는 ‘팻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총 80억), ‘국가바이오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사업’(총 380억) 등 6개 중점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팻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과 ‘국가 RI-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은 지난 2년간 정읍시가 미래성장동력으로 공동여운 사업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국회에서 건의한 중점사업은 단순한 예산확보 차원을 넘어, 정읍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라며 “국회 심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정치권,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 내장호, 대한민국 치유관광 성지로

정읍시가 내장호 일원을 ‘대한민국 치유관광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3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정읍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2028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자연과 예술이 숨쉬는 대한민국 치유관광지의 성지’ 조성을 목표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도비 50억원을 지원받아 총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2021년 내장호 상류 일

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치유관광 인프라 개발사업과 방문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진흥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이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장호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핵심 허브로 삼을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웰니스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내장호의 자연경관과 조각공원의 예술적 가치를 결합해 내장호를 치유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성지혜움길 다이로운 익산여행’ 추가 운영

참가자 호응에 11월·12월 진행

익산시가 관광객의 큰 호응에 힘입어 순례형 치유여행 프로그램 ‘성지혜움길 다이로운 익산여행’을 추가 운영한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2025 성지혜움길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총 44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92.9%가 타지역 관광객으로 집계됐다.

참가자 만족도는 94.7%로 매우 높았고, 지인 추천 비율이 61.4%에 달해 여행의 진정성과 체험 만족도가 자연스러운 홍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군산시가 철새 이동이 본격화하는 겨울철을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 27일 만경강 하류 야생조류 분변에서 동절기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N1형)이 검출됐고, 연달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는 사례가 많아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행히 방역대 내 전입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아직까지 농장 내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만일에 대비해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

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검출지점 반경 3km에 대해서도 황원 검출 사실과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사단 등의 접근을 막고 있다.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언제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장출입 차량·사람 출입 통제, 야생조류 차단 등을 위한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약간의 의심 증상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국비확보 ‘발품행정’

정성주 시장, 기재부 이어
국회까지 농해수위에게
위원에 사업 지원 요청

2026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중점사업의 국회 증액 심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재부 방문에 이어 국회를 찾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10월 30일에는 이원택 농해수위 위원을, 지난 3일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과소·미반영된 주요 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회단계 국비 추가 반영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에 건의한 중점사업으로는 △시설농업로봇 실증기반 구축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 구축 등 모두 지역 성장의 전환점이 될 사업들이다.

정 시장은 앞서 2026년 정부 예산안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28일 기재부 방



2026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김제시가 중점사업의 국회 증액 심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재부 방문에 이어 국회를 찾아 총력 대응에 나섰다.

문에 이어 연일 국회를 방문하는 등 총력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정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안정적 재원 마련 기반이자 지역 발전을 좌우할 분수령”이라며, “국회 심사가 이어지는

연말까지 중앙부처, 국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업 건의활동을 펼쳐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청 유도부 박은이, 국가대표 ‘발탁’

올해 이어 내년도 선발
이정운 선수 동메달 획득

고창군청 여자유도선수단이 최근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2025 순천만국가정원집전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팀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서 고창군청 여자유도부의 박은이 선수는 16강전에서 용인대학교 김민주 선수를 상대로 조르기 한판승, 8강에서 경남도청 허승립 선수에게 허벅다리걸기 절반, 발뒤축걸기 절반승, 준결승에서 포항시청 한수연 선수와의 경기에서 허리후리기 절반, 누르기 절반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용인대학교 정수진 선수에게 안뒤축걸기 유효패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탄탄한 기본기를 인정받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함께 출전한 이정운 선수는 8강에서 한국체육대학교 고가영 선수



를 허리후리기 한판승으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올랐으나, 준결승에서 동해시청 김주원 선수에게 허벅다리 절반패로 결승 진출은 무산됐지만, 동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이지연 지도자는 “선수들이 평소 훈련에서 갖고있던 기술과 집중력을 대회에서 잘 보여줬다”며, “특히 박은이 선수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팀의 위상을 높였고, 다른 선수들도 성

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과 팀워크를 통해 더 강한 팀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청 여자유도부는 매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며 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된 훈련 환경을 조성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병의원 연계형 치유농업 성과 공유

우울 고위험군 대상자
정서안정 등 긍정적 변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4일 관내 신세계 병원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주관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우울 고위험군 대상 인지 행동전략 치유농업프로그램 적용’의 현장 실증 시연회 및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하고 검증한 ‘우울 고위험군 대상 인지 행동전략 치유농업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성과를 공유하고, 그 효과

성을 참여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평가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도시 인접 김제시 소재 신세계 병원에서 우울 고위험군 중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예중심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직접 시연됐으며,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 과학적 접근의 사례를 선보였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정란 교수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및 전주시보건의소와 협력해 난임으로 인한 우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동일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우울감의 경우 사전 2.667점에서 사후 0.889점로 유의수준 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우울증 건강설문-9의 경우 사전 7.889점에서 사후 4.000점으로 감소, 스트레스 경우 51.889점에서 사후 40.111점, p=0.008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됐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관내에서 실증되는 이번 행사가 우울 고위험군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업 수행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병의원 연계형 원예 기반 치유농업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확대 가능성을 논의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김제시가 치유농업을 밝히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한국해상풍력, 부안군에 장학금 5백만원 기탁

인재 교육 지원
지역 사회 상생 실천

한국해상풍력(대표 김석무)은 최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부안의 미래를 위한 인재 교육 지원 및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석무 한국해상풍력 대표는 “부안군 발전에 지역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번 장학금이 지역 학생들의 꿈을 펼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지역 업체가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참여해주어 감사하다”며 “기탁된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바른 인재를 키우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 개최

공직자 적극행정 의식 고취

고창군은 지난 3일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직 사회 적극행정 실천분위기를 장려하고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행사는 간부 공무원들의 주도로 아래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의식을 고취하고 조직 전반에 걸쳐 관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슬로건에는 고창군이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현재 고창군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와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중이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행사가 공직자 모두에게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법적 보호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예술회관, 18일 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연

부안군은 오는 1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광주시립오페라단 부안군 특별 초청공연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도니체티의 대표 희극이자 이탈리아 3대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줄 이번 무대는 경쾌한 서사와 감미로운 선율이 어우러진 두 막의 로맨틱 코미디로 초보자부터 마니아까지 모두를 위한 공연으로 기획됐다.

무대는 1880년대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지주의 딸 아디나를 짝사랑하는 순박한 청년 네모리노가 떠돌이 약장수 돌카마라에게 ‘사랑의 묘약’을 건네받으며 벌어지는 유쾌한 에피소드를 그린다.

부안예술회관 관계자는 “오페라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중



점을 둔 기획 공연인 만큼 클래식 문화를 가깝게 느낄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공연을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토지분할 사전검토제 시행

민원인 시간·비용 부담↓

고창군이 토지분할 측량 접수에 앞서 토지분할 신청 관련 규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토지분할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 부동산거래 지연 등 2차 민원이 발생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너나들이 가족봉사단, 7차 봉사활동 진행

부안군(군수 권익현) 너나들이 공무원 가족봉사단은 최근 부안읍에 위치한 오본이마을에서 제7차 봉사활동 ‘사랑 담은 카스테라’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20명의 봉사단원들은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정성껏 카스테라를 만들었으며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반죽을 섞고 포장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애를 다지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키우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어린이 봉사단원은 “오랜만에 엄마와 아빠랑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뜻깊은 나눔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차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너나들이 공무원 가족봉사단 관계자는 “우리 부안군 가족봉사단은 단기간이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웃음이 넘치는 따뜻한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과거 쓰레기 매립장 부지 죽산면 파크골프장으로 탈바꿈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4일 과거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새롭게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9홀 규모의 죽산면 파크골프장으로 탈바꿈해 개장했다고 밝혔다.

죽산면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0억원(도비 5억, 시비 5억)을 투입해, 부지 약 18,000㎡에 9홀크기로 조성됐으며 구장은 매표소, 주차장, 휴게소, 화장실 등의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파크골프장 조성부지는 과거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부지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시민들에게 새로운 복지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시는 초보자도 부담 없이 파크골프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스포츠 복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당분간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죽산면 파크골프장은 뛰어난 조경을 가미 어느 골프장보다 돋보이는 골프장으로 조성했다”며 “요즘 파크골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 조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보다 쉽게 보다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수능 수험생 응원 무료 스케일링 서비스 지원

고창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강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무료 스케일링(치석 제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학업으로 인해 구강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수험생들을 위해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1:1 맞춤형 구강교육, 구강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며 수능 당일 11월 13일부터 진행된다.

대상은 2026학년도 수험생으로, 고창군에 주소를 두거나 고창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전 전화 예약 후 수험표 또는 학생증을 지참해 고창군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고등학업과 입시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길 바라며, 성인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이 평생 사용할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농어촌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어울 한마당 성료

부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부안스포츠파크 야외무대에서 제3회 마을공동체 어울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7개 마을이 모여 퍼레이드를 진행함으로써 행사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부안 관내 28개의 마을과 500여명의 주민분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축하 공연과 마을놀이 대항전 게임, 마을장기자랑과 추첨행사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8개의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돼 행사 참여한 마을 주민분들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됐다.

마을공동체 어울 한마당은 2023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부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사업내용도 전시를 함께하고 있어서 1년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다.

하남진 센터장은 “마을공동체가 1년여간 진행한 마을사업을 관내 여러 마을과 공유하고 상호간 교류행사로 진행해 주민들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됐으며, 마을 주민분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어느덧 마을공동체 어울 한마당이 3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엔 더욱 많은 주민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촉구 결의

4일 국회서 결의행사·토론회 열어 2000여 명 참가 대규모 연대의 장

남원시는 4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앞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촉구 결의 행사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 필요성을 중앙정부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연대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이 날 행사는 1부 시민과의 대화, 2부 결의대회로 이뤄졌다. 현 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이성운 국회의원, 허성무 국회의원(장원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삼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모경종 국회의원(인

천 서구병), 오세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경식 남원시장, 전북자치도 동부권 및 지리산권 주민 약 2,000여 명이 함께해 '1600만 영호남 도민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염원한다'는 구호로 지역 간 상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1부 '시민과의 대화'는 남원시 홍보대사 개그맨 김범준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남원시 홍보대사인 배우 이원종은 남원의 강점과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이후 2부 결의대회에 감쪽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을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낭독된 결의문에는 △경찰교육기관의 총청권 집중 해소 △영호남 내륙 중심지로서 남원의 입지 우수성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발

전 실현의 당위성 등이 담겼으며, 전북 자치도 동부권 및 지리산권 주민들은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곡성·산청·함양·하동 등 지역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연대의 뜻을 표현했다.

결의행사 직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토론회'에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 신정훈 국회의원, 신성범 국회의원의 서면 축하사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 경찰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2중앙경찰학교의 정책적·경제적·균형발전 측면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국에 확산시키며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길"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 '순항'

수달 출현 '환경 효과도 입증' 경천 구간 본격 공사 진행 중

순창군이 추진 중인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며 지역의 새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총사업비 175억 5천만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순창읍 일원 총 4km 구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의 첫 단추였던 양지천 구간은 이미 성공적으로 완공돼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제방 꽃단디 식재공사를 시작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책로 조성 및 저수호안 정비공사가 완료되면서 1.4km 구간이 아름다운 수변 공간으로 변모했다.

특히 최근에는 양지천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발견돼 더욱 화제를 모았다. 이번 발견은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하천 생태 복원과 수질 개선이라는 실질적 환경 효과를



순창군의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사진=순창군>

임증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는 경천 구간 2.6km 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경천과 양지천이 만나는 합류부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바닥분수와 화원을 갖춘 두물머리 공원이 조성되고, 대형 음악분수대가 지난 9월부터 설치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 완공 예

정으로,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천을 따라서는 내년까지 조성될 쉼터와 함께 꽃단디, 수선화, 튜립 등 다양한 초화류가 식재돼 사계절 꽃길로 완성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총 4km 수변 산책로가 조성돼 관광 명소이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는 3일 제1회김병종미술상공모전 수상 어린이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남원시, 제1회 김병종미술상 어린이 공모전 시상

총 400명 어린이 참여 '열기' 수상 그림 내달 15일까지 전시

남원시는 3일 '시장 소통혁신의 날' 행사에서 제1회 김병종 미술상 어린이 그림 공모전 수상자 3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시상 은 남원시장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수상작 전시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시 '오상아吾商我: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가 열리고 있는 제3 전시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4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차 이미지 심사와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부

문별로 각 1명씩 총 3명의 수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유아부 최우상은 권도는 어린이(경기도 성남시), 초등학교 저학년부는 김시환 어린이(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초등학교 고학년부는 함지을 어린이(전라남도 여수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생명의 화가'로 불리는 남원 출신 김병종 화백의 예술정신을 알리고,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모전 이 어린이들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국창 권삼득' 고향 완주, 추모국악대제전 26회 맞아

8~9일 완주문화체육센터서 전통문화 체험 부스 등 운영

완주군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과 완주 문화체육센터에서 '제26회 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을 연다.

대회는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이자 '덜림제' 창법의 창시자로 알려진 국창 권삼득(1771~1841) 선생을 기리고, 국악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돼 올해로 26회를 맞았다.

이번 국악대제전은 판소리, 무용, 기악(가야금병창 포함), 타악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8일에는 예선 경연이 일반부·신인부·학생부로 나뉘어 단선제로, 9일 본

선에서는 판소리 명창부(일반인부), 무용, 기악(가야금병창) 부문 경연이 펼쳐진다.

대회에 앞서 7일 저녁에는 완주군과 전북도립국악원이 공동 제작한 창극 '신창 권삼득'이 무대에 오른다.

경연 참가자와 관람객을 위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장구 만들기, 민화 부채 만들기, 판소리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과 권삼득의 생가터와 발자취를 잇는 '권삼득 소리길 투어', 권삼득 관련 영상과 다류를 상영하는 권삼득 명창관도 함께 마련된다.

8일에는 조선시대 과거시험 재현 특별 이벤트가 열려 전통 복식과 의식을 재현한 퍼포먼스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후계농 한자리에… '돈 버는 농업' 공감 확산

제3회 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최영일 군수 농촌경제 특강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회장 한태상)는 지난 4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2025년 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손종석 군의회 의장과 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농업경영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1부에 최영일 군수의 특강 및 표창대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장기자랑 및 경품추천 등으로 진행됐다. /순창=박지현 기자

로 진행됐다. 특히 1부에서 강연자로 직접 나선 최영일 군수는 '돈 버는 농업'을 주제로 순창군의 주요 농업정책을 소개하며 현장의 관심을 모았다.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공모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과 사용처, 선순환 경제모델 등을 소개하며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태상 회장은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공동체 구축과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건 강한 농업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연계 농촌유학 성과 공유

운주농촌유학센터 발전방향을 논의

완주군이 지난 3일 운주농촌유학센터에서 '완주군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하는 반짝이는 순간을, 완주군과 함께'를 주제로 농촌유학센터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대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농촌유학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유학생의 성장 일기와 학부모의 감사일기 등 진솔한 이야기로 참석자들의 큰 공감과 감동

을 이끌었다.

특히 완주군이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된 농촌유학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정주형 교육모델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운주농촌유학센터는 지난 2020년 11월 개소 이후 현재 11명의 도시 유학생이 지역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군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정주형 농촌교육모델의 성공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장수기업 '지리산 윤봉주조' 백년가계 선정

남원 장수기업 '지리산 윤봉주조'가 44여년간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며 전통을 바탕으로 가업을 이은 장인정신으로 백년가계로 선정됐다.

지리산 윤봉주조는 1대 최규창 대표가 80년부터 윤봉주조장을 경영했으며 현재는 최봉호 대표가 부친과 함께 운영 중이다.

위생 생산시설 설치 및 전통 양조 제조공장을 마련해 전통주 제조장을 설립했고, 농식품부 선정 '찾아가는 양조장'으로써 6차산업의 전통주 체험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업체에는 인증현판과 성장 스토리보드가 전달되며, 윤리상품권 가맹특례, 정책자금·컨설팅 우대,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백년가계는 제조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3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백년가계 88개사, 백년소공인 63개사 등 총 151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강천산군립공원, 관광객 대상 '인증사진' 기념품 이벤트 진행

순창군이 가을 관광 성수기를 맞아 강천산군립공원에서 '썸GO! 받GO! 투어 이벤트'를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유산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총 480명의 강천산 입장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순창군민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강천산 내 '모과나무(강천사 앞 위치)'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순창군 관내에서 사용한 1인당 1만 원 이상의 당일 영수증을 지참해 강천산 종합관광안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안내소에서는 신분증 확인 및 간단한 수령 명단 작성 후 장류세트(된장, 고추장, 쌈장 각 120g)를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자연과 지역 특산품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에게 작지만 특별한 추억과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올가을, 강천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따뜻한 선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면서 "앞으로도 순창의 자연과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채미화)가 4일 완주군문화체육센터에서 '2025 완주군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더 큰 완주군의 미래, 여성과 함께!'를 주제로, 완주군 여성단체 13개 회원단체와 군민 등 4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단체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했다.

대회는 △개회식 △네트워킹 교류 △통합한마당(운동회, 공연,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단체별 장기자랑과 참여형 게임이 진행돼 회원 간 친목과 협력을 다지고,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화합의 장이 됐다.

채미화 회장은 "이번 행사가 여성단체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히 하고, 지역사회에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군에서도 여성의 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다문화가족·시민 어울림 축제 공연·음식·의상 등 문화공감의 장

남원시는 오는 8일 남원예촌마당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2025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을 개최한다. '다양한 가족 이리온(O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네팔 근로자의 랩 공연, 캄보디아의 전통무용 압살라 춤 등 다채로운 식전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각국의 예술이 전하는 다양성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압살라 춤은 천상의 요정이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며 추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전통무용으로 특별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동육아나눔터 성과발표회 △다문화 장기자랑 △다문화 음식 체험 △전통의상 체험 △만들기 체험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남원시가족센터 나찬도 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시 다문화가족은 640세대 2,308명으로 다양한 맞춤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고향나들이 지원사업과 심리·정서상담을 통해 올바른 자녀성장을 지원하는 마음성장 지원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가족과 김미옥 과장은 "남원은 다양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시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드라이브 인 페스타 안전관리 이상 無”

시설물 안전 등 문제 제기해eming “사전계획~현장점검 철저히 이행”

완주군은 최근 제기된 ‘드라이브 인 페스타 안전관리 부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행사는 대행사와 철저한 사전계획과 현장점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군은 축제 개최에 앞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과·문화관광과·완주문화재단, 대행사 등 관계기관과 공식 협의를 거쳤다. 해당 계획에는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지정, 안전요원 배치계획, 긴급대응체계 및 기상상황 대응 방안 등 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행사 전날인 10월 16일에는 완주군 문화여사과, 완주문화재단, 완주산단사무소 등 유관기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배전판 위치 관련 안전관리 미흡'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분전함 설치, 시간장치 설치 등 안전기준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유선 확인 결과 월제웍스 설치는 고전압(22,900V) 이상에만 필수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번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사 운영기간 동안에도 군은 경찰, 소방, 응급의료 부스를 상시 운영하며

실시간 상황을 공유했다. 행사장에는 경호·교통·질서·안전요원·부스관리자 등 총 170명이 배치돼 관람객 동선을 통제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불꽃놀이 구간 통제, 야자매트 설치 등 현장 조치도 즉시 이행됐으며, 행사 내 안전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경찰추산 3만8천여 명이 집결한 대규모 행사였음에도 사고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이 확산되는 것은 유감이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군산중앙신탁, 관내 취약계층에 겨울이불·어부바박스 전달

군산시 나운3동(동장 김소영)은 군산중앙신탁(이사장 서대근)이 지난 3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이불 12채, 어부바박스 30개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어부바 박스’는 마스크트 어부바를 활용한 기부 박스로 전국 신탁이 추진하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중앙신탁은 곰탕, 국수, 라면 등이 골고루 담겨 있는 식료품 세트를 ‘어부바 박스’에 담아 전달했다.

특히 군산중앙신탁은 ‘온(溫) 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서대근 이사장은 “온(溫) 세상 나눔 캠페인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중앙신탁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주 센트럴키즈어린이집,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전액 기부

센트럴키즈어린이집(원장 이해상)은 4일 전주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70만 1000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들과 함께 진행한 환경운동 실천의 일환인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이다.

센트럴키즈어린이집은 이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나눔과 절약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교육의 장을 제공했다.

지난 2020년부터 6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센트럴키즈어린이집은 현재 만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 44명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윤방섭 전주복지재단 이사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해 주신 센트럴키즈어린이집 이해상 원장님과 원아,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전달된 성금은 전주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대한적십자사 진안군협, 김장김치 700포기 담가 전달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독거노인 등 30가구에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진안군협의회(회장 김정숙)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으로 반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 봉사원 75명은 이른 아침부터 차가운 바람 속에서 배추 700포기(약 2,400kg)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성껏 담근 김치는 진안군 내 독거어르신과 장애인가정 등 3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진안군협의회 김정숙 회장은 “직접 손으로 담근 김치 한 포기가 어려운 이웃의 식탁에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5곳, 나눔바자회 성금 기탁

바자회 수익금 488만여 원 선택보육원에 전달

완주군이 지난 3일 ‘오색 빛깔 나눔행사 성금 전달식’을 열고, 삼봉지구 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나래푸르지오·미래나루·삼봉·우미키즈·중흥바른)가 모은 488만 3,900원의 성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선택보육원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23일 열린 ‘오색 빛깔 나눔행사’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이웃사랑의 마음을 나눴다.

전달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5명과 학부모 대표 5명, 선택보육원장 등 총 11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이은미 원장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모은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돼 무척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진안 상전면지사협,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개최

진안군 상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일 관내 어르신 200명을 초청해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연말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마련됐다.

상전면은 타 지역과 달리 식당 접근성이 낮아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외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짜장면과 같은 외식 메뉴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지사협 회원들의 의견과 정전면에 거주하는 고명수 씨의 재능기부(조리 봉사)로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박종석 위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짜장면을 준비했다”며 “작은 식사 한 끼에도 기뻐해주신 어르신들께 되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따뜻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소진공 전북지역본부, 부안군에 150만원 기탁

부안군은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성권) 임직원 일동이 고향사랑기부금 1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부안군과 소진공 전북지역본부가 최근 체결한 지방상생 자매결연 협약 이후 이뤄진 실천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측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기탁식은 부안군청 군수실에서

열렸으며, 김성권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과의 연대를 표현했다.

김성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은 “단순한 협약을 넘어, 직접적인 소비와 기부로 지역과 함께하자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실천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진안군 여성단체협의회, 장학금 200만원 기탁

진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미희)는 4일 군청 군수실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에서 박미희 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매년 고향의 인재 양성을 위해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기부 해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진안군 여성단체협의회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의 진안 지회를 1956년 12월 설립된 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진안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군산팔마신탁, 조촌동에 겨울 이불·라면 20박스 전달

군산팔마신탁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는 군산팔마신탁이 ‘온 세상 나눔 캠페인’의 하나로 지난 3일 겨울 이불 9채와 라면 20박스(현금가 1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달된 물품은 조촌동 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팔마신탁 조남현 이사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도영 조촌동장은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군산팔마신탁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소중한 물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가을철

호흡기 질환 예방하는 생활 습관

❖ 물 자주 마시기

❖ 외출 후 손, 발 잘 씻기

❖ 적절한 운동으로 면역력 높이기

❖❖ 실내 환기, 청소로 미세먼지 차단

❖ 충분한 수면과 고른 영양 섭취

감기, 독감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폐감염

천식

인두염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SARS)

만성폐쇄성질환 (COPD)

주요 호흡기 질환 종류

〈一事一言〉



AI 시대, 전북 창업대전으로 대한민국 혁신 이끌자

김관춘
논설위원

전북의 대표 창업 페스티벌인 '제10회 스타트업(Start-up) 전북 창업대전'이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지역 창업생태계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미래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도내 창업지원 기관과 대학, 협·단체, 투자사 등 130여 개 기관과 기업이 함께한 이번 대전은 '기술창업 중심지 전북'의 저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대를 향한 새로운 10년의 항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10년간 전북은 결코 작지 않은 변화를 이뤄냈다. 초기 창업 발굴에서 기술개발, 사업화, 투자연계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토대를 다졌다. 그 결과 전북형 창업 생태계는 단순한 지역 지원 모델을 넘어, 혁신과 협업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키워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창업의 무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AI가 산업의 질서를 바꾸고, 데이터가 부와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창업대전의 슬로건인 'AI 전환의 중심, 전북 창업생태계에서 시작됩니다'는 바로 이러한 시대정신을 압축한 선언이다. 전북 AX(Advanced Transformation) 위원회의 출범은 지역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AI와 디지털 대전

환을 선도하겠다는 구체적 의지의 표명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북의 산업과 경제 전반을 '데이터 중심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실험이자 도전이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제조업은 스마트팩토리로, 농업은 정밀농업으로, 의료와 복지는 예측형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전북이 강점을 가진 식품, 농생명, 에너지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AI가 결합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은 물론, 지역 산업의 부가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하면 AI 기반의 스마트 식품 개발, 기후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작물 재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RE100형 산업단지 운영 등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전북이 이러한 변화의 시험무대이자 혁신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지방'의 한계를 넘어 '국가 혁신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다.

이번 창업대전에는 AI, 테크, 핀테크 등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대거 참여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프로그램, 대학연합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투자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창업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잇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주목할 점은 베트남 호찌민시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이는 전북 창업생태계가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

도 많다. 무엇보다 창업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어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초기 창업지원 이후 투자와 판로, 인력, R&D로 이어지는 사슬이 단절되면 혁신의 불씨는 금세 꺼질 수밖에 없다.

특히 AI·바이오·핀테크 등 고위험·고기술 분야는 실패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실증 테스트베드와 규제 샌드박스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 공공 데이터 개방, AI 윤리 기준의 명확화가 병행될 때, 기술 창업은 비로소 도약의 기반을 얻는다.

또한 지역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에 머물러선 안 된다.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술이전, 학생 창업, 산학 공동연구 등 지식의 산업화 플랫폼으로 변모해야 한다. 전북대, 원광대 등 주요 대학이 중심이 되어 AI 인재 양성과 창업교육을 결합한 'AI 융합 캠퍼스'를 조성한다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인재는 결국 혁신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창업은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의 결합에서 출발한다. 이미 생성형 AI가 콘텐츠, 디자인, 마케팅 등 창업 초기 단계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이를 활용해 저비용·고효율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전북의 청년 창업가들이 AI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

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이런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창업가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금융·복지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창업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전북의 창업생태계는 이미 단단한 토대를 구축했다. 그 위에 AI 혁신의 씨앗을 심는다면, 전북은 더 이상 지방의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타트업 지형을 이끄는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다. 지난 10년이 창업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AI 기반의 혁신 성장,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기가 되어야 한다. '전북에서 창업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창업대전의 불씨는 결코 꺼져서는 안 된다.

AI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전북이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고 나아간다면, 대한민국 창업지도의 중심은 머지않아 '전주'와 '전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일 것이다.

사설

전북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대 설립이 답이다

전북자치도가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사직·휴학 사태로 의료 공백이 컸던 전북 의료 현상이 최근 복귀와 함께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필수진료과목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의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전북도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된 이후 곧바로 의료 재건 작업에 나섰다. 현재 도내 6개 수련병원에는 총 335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76% 수준까지 회복됐다. 진료량 또한 102% 수준으로 회복돼 의료 기능이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전북대병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광역책임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음압수술실과 로봇수술실 신설 등 135억 규모의 투자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발판이다.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을 줄이고 도민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물리적 회복이 곧 의료 불균형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방 의료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깊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은 지역의 의료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분야의 인력 부족은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의 과제다. 전북의료체계는 이러한 필수과목의 지속

가능한 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의료 정상화'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북도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의료 취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원에 추진 중인 공공의대는 국가 의료안보의 균형을 잡는 전략적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북도는 국회와 관계부처,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 연내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역시 지역의료 불균형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공공의대 설립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전북의료의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병상 확대나 시설 개선을 넘어 의료 인력의 지속적 양성과 정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방의료는 민간시장 논리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지역 내 필수의료로 지키는 공공 인프라를 세우고 젊은 의사들이 안심하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그 출발점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과 공공의대 설립이 맞물려 지역의료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고창 석탄정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누정
-지정일 - 2021년 4월 9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341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11월 5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경영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₂

푸른하늘을 지키는 작은 실천

작은 실천이 늘어나면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063)282-9601

신문구독 -063)282-9600

JBT

전북타임스 신문



고창에서 생동하는 지역경제... “체감형 민생경제정책 훈풍”

군민활력지원금·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소상공인 용자지원으로 두텁게

■고창군, 9~10월 군민 1인당 50만원 혜택으로 민생경제 응원
-전통시장·치킨집·동네마트 등 지역소상공인 웃음꽃

“전에는 목 터지라고 손님을 불렀어야 했는데 좀 수월한 거 같아요”

추석 연휴 첫날 대목장이 있던 지난 3일 고창읍 고창전통시장은 주민들로 북적였다. 상인들은 “선물하시게요?”, “활력카드로 하면 더 싸다” 등 말을 걸며 손님들을 맞았다. 시장 한쪽에 마련된 현금행사장으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수산물을 산 뒤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려는 이들이었다.

최모씨(40대·여)는 “진정어머니를 따라 명절 차례 음식을 사러 나왔다”며 “주로 생선을 사러 왔다. 매년 장을 보러 오는데 이번엔 고창활력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재료를 더 많이 챙겨두려 한다”고 말했다. 50대 김모씨는 “명절에 먹을 꽃게와 전어를 보러 왔다. 읍사무소에서 카드타서 지금 장 보고 가는 길”이라며 “물가가 높아서 구매량이 조금 줄었지만, 군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더 많이 살 것 같다”고 했다.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정은 9~10월 활력지원금, 민생소비쿠폰,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까지 더해 군민 1인당 총 50여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7월부터 고창군 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를 위해 장날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군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장볼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성은아 고창전통시장상인회장은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시장 상인들은 군을 믿고 있다”며 “소비쿠폰과 활력지원금 지급 이후 온누리상품권 현금행사까지 더해 시장 매출이 평균 60%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지급율 94%.. “민생회복과 지역활력의 선순환”

고창군이 ‘군민활력지원금’을 통해 민생회복과 지역활력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지급된 군민활력지원금은 10월 15

일 현재 94%의 지급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2차 소비쿠폰까지 더해 1인 30만원씩을 받게 되면서 도시 전체의 활력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이번 군민활력지원금 지급은 어렵게 결정됐다. 정부지원으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지역 곳곳에서 눈물겨운 사연과 선한 기부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지원에 불을 댕겼다. 또 유례 없는 폭염·폭우로 각종 농작물 피해와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질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면서 고창군의회와 함께 소통하며 군비를 투입한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격적인 지급이 이뤄졌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 고창사랑상품권 발행
고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을 적극 발행하고 있으며,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0월 한달간 전국 최고 수준인 20%특별할인을 시행중이다.

특히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해 군민들의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8월22일부터는 행안부 지침 완화에 따라 가맹점 사용처를 확대해 고수, 아산(아산점, 선운사점), 무장, 공음, 상하, 해리, 성송, 성내, 부안 총 10개소의 하나로 마트를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해 고창사랑상품권과 정부의 소비쿠폰을 쉽고 편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금 용자 및 이차보전 지원
총 130억 원 규모

고창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용자 지원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총 13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연 5% 이차보전을 지원해왔으나, 지난해부터는 ‘희망더딤 특례보증 용자지원사업’을 도입해 최대 5천만원까지 용자가 가능하고, 5년간 연 3%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한도와 조건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총 12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 용자와 1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포함해 총 13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읍·면 주민행복센터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 신용보증재단 고창지점에서 상담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적시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정책 체감도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물가 안정 기여

군은 착한가격업소를 기존 25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합리적인 가격, 위생, 서비스 등을 갖춘 착한가격업소를 통해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만족도를 함께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상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 고창시장 5동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노후 소방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장엔정 장비기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와 시장 내 환경정비 등을 지원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가를 군민들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군에서 지급하는 군민활력지원금과 정부의 민생소비쿠폰이 더해져 군민 모두가 더욱 넉넉한 가을을 나시길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함께

한꺼번에 같이,
또는 서로 더불어,

전북타임스신문

전북도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